

연금시장리뷰 46호

신성장 산업의 발굴

-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첨부자료>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추이

-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 이철선 연구위원(02-2072-6242, cslee@hri.co.kr)

1.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24년)보다 6년이나 빠른 18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의학발달로 인해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2030년에 90.8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토지의 42.0%, 건물의 58.0%, 주식의 20.0% 등 경제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부터 대거 은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신성장 산업으로서 실버산업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보, 여가, 주택, 한방, 농업, 요양, 기기용품, 금융 등 이른 바 실버산업인 국내 8대 고령친화산업의 2010년 시장규모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시장규모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고령친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부산업별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국의 실버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추정방법) 2010년 시장규모 추정에서는 고령화 및 미래위원회 ('05)가 2002년 시장규모 추정에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변수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2002년 시장규모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두 번째로, 2010년 시장규모는 산업별 추정변수가 다른 부분이 존재하나 2002년 추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중심을 두고, 현황치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세 번째로 2018년 시장규모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시장성장률과 2010년의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고령화 증가율을 지수화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02년 6조 3,820억 원에서 2010년 22조 1,906억 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에는 83조 7,64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명목 GDP 대비 2010년 시장규모는 1.89%였으며, 2018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2018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은 고령화수준 고려 시, 비금융부문은 17.7%, 금융부문은 18.8%로 전망된다. 세부산업별 시장규모는 다음과 같다.

< 실버산업 시장규모 전망 결과 >

구분	산업	시장규모(억 원)			연평균 성장률(%)	
		2002	2010	2018	2002~2010	2010~2018
비금융	소계	53,412	153,398	566,333	14.1	17.7
	정보	2,446	13,399	96,552	23.7	28.0
	여가	24,387	51,962	145,641	9.9	13.7
	주택	5,871	20,281	92,159	16.8	20.8
	한방	10,188	15,036	29,191	5.0	8.6
	농업	3,383	11,684	53,083	16.8	20.8
	요양	129	22,434	84,754	90.6	18.1
	기기용품	7,008	18,602	64,953	13.0	16.9
금융	소계	10,408	68,508	271,313	26.6	18.8
	퇴직연금	6,826	16,250	50,888	11.5	15.3
	개인연금	3,372	48,980	177,442	39.7	17.5
	민영건보	210	2,637	35,095	35.4	40.1
	역모기지	0	911	7,888	174.6	31.0

3.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발전 방안

초기 시장형성단계에서 규모 확장중심의 성장기로 진입한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각 세부업종별 문제점 파악과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전 체) 한국의 고령친화산업은 정부주도의 부처별 각개격파식 육성으로 시너지 창출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하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경우 한방관광과 같은 세부산업 간 연계, 민간부문은 기업들의 산업참여를 위한 유인책 개발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내수중심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보산업) 대면중심의 의료법 등 법적 문제로 인해 u-Health서비스가 지연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제품출시 지연 또는 해외시장의 직접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성장의 장애물로 등장한 의료법 및 약사법의 개정과 더불어 u-Health서비스를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품목에 포함시켜 시장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여가산업) 노인복지회관, 지자체 문화센터 등 여가산업은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반면에 영화, 여행 등 민간부문의 산업육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여행산업의 경우, 고령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영화산업은 사회적 책임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후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 고령자들은 현 주택 거주희망률이 높아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주택시장의 성장은 어렵고, 주택개수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신규주택공급보다는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주택개수시장을 육성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을 확보해야 한다.

(한방산업) 고령화의 가속화에도 가격부담과 한약재의 안정성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한의원의료서비스 이용률이 2008년 6.5%에서 2010년 5.1%로 급감했다. 따라서 한약보약재의 의료보험 확대와 한약재의 가격공시제 도입으로 가격부담을 낮추고, 원산지 표시제 등 표준화 작업과 노인전문 한방의원 도입으로 시장성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농 업) 기존 고령농가와 고령 귀농가구의 소득확대를 위한 신농업 교육 등 지원정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령자에 맞춤형된 전문영농교육 개발과 창업지원금 제도마련을 통해 고령농가들의 소득증진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요양산업) 양적 측면에서는 적은 재정규모로 인해 보험 수혜자가 적고, 질적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과대하며 처우는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조달 비중 확대로 수혜자를 확대시키고, 관리제도 수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기기용품)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 참여기업들의 평균 자본금이 1.03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해 R&D 투자가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산하기관인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등을 이용해 제품 R&D를 주도하고 전파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산업)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낮으며, 부동산 담보를 통한 역모기론은 수도권 대비 지방가입률이 낮다. 따라서 역모기론의 지방확산 노력과 민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고령자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도입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1.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실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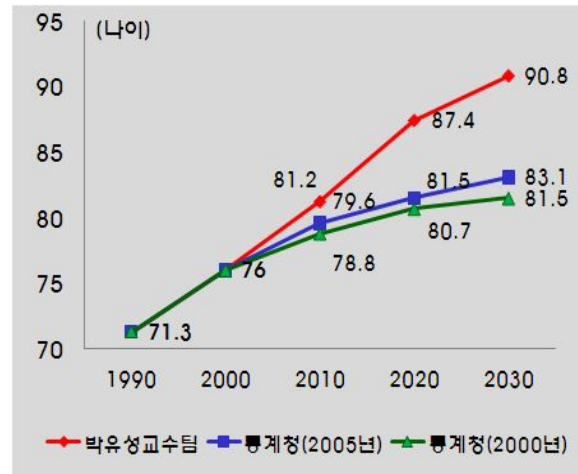
-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2030년에 90.8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일본(24년)보다 6년이나 더 빠른 18년 임
 - 2030년의 한국인 기대수명에 대해 통계청은 83.1세로 예측했지만 최근 고려대 연구팀은 의학발달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90.8세로 추정함

< 고령사회 도달 추이 >

구분	도달 연도			증가소요 연수	
	7% (고령화 사회)	14% (고령 사회)	20% (초고령 사회)	7→14 %	14→20 %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독일	1932	1972	2009	40	37
이태리	1927	1988	2006	61	18
미국	1942	2015	2036	73	21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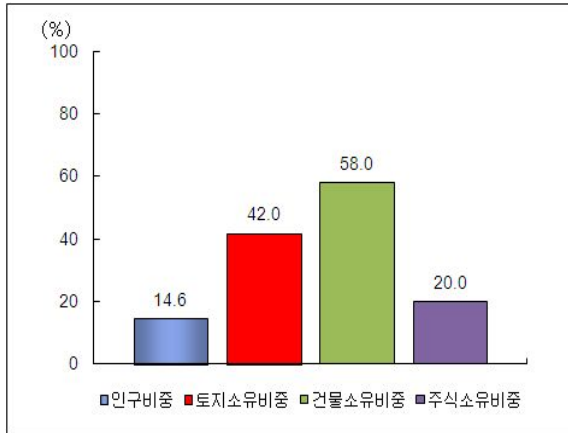
< 한국인의 기대수명 >



자료: 통계청,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2011.

- 한편, 경제력과 라이프스타일에서 과거세대와 다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로 신성장 산업으로서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됨
 - 베이비붐 세대는 1955~63년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국내 토지의 42.0%, 건물의 58.0%, 주식의 20.0%를 보유함
 - 베이비붐세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과거 국민소득, 대학진학률, 거주형태, 근로시간 등 라이프스타일에서 과거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보유함
 - 고령화의 가속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로 인해 신성장 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이 부각되고 있음

< 전체 인구 대비 베이비붐세대 비중 >



자료: 미래에셋 투자연구소

< 베이비붐세대의 라이프스타일 >

구분	과거	오늘
1인당 국민소득(\$)	('60) 79	('09) 17,175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명)	('67) 64.8	('09) 27.8
학원 수(개)	('73) 2,746	('09) 72,242
대학진학률(%)	('79) 남 29.2, 여 20.7	('09) 남 81.6, 여 82.4
평균 초혼연령(세)	('90) 남 27.8, 여 24.8	('09) 남 31.6, 여 28.7
주택유형별 가구분포(%)	('90) 단독 75.3, 아파트 14.8	('90) 단독 45.1, 아파트 42.3
월평균 근로시간 (40~44세)	('00) 남 208.8, 여 204.8	('00) 남 208.8, 여 204.8

자료: 통계청, 베이비붐세대의 어제와 오늘, 2010.

- 본고에서는 2010년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의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세부산업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성장 산업으로서 고령친화산업의 가능성 파악을 위해 우선 2010년 시장규모를 현황치를 중심으로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2018년 시장규모를 추정함
- 다음으로 고령친화산업의 세부산업들인 정보, 여가, 주택, 한방, 농업, 요양, 기기용품, 금융산업의 문제점 파악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함

2. 한국의 실버산업 시장규모 전망

□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의 개념

- (개념)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함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흔히 실버산업이라 명칭하지만, 실버산업은 일본산업의 영향을 받은 명칭이며, 공식적으로는 고령친화산업임
- 고령친화제품은 65세 이상 노인을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써 기기용품, 주택, 요양서비스, 금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 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등을 의미함

- 정부에서는 고령자 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해 2005년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을 바탕으로 2007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 발표함

< 고령친화산업 품목 >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내용 >	
시기	부문	품목	구분	내용
1차 주요 산업	- 요양산업	- 재가 및 시설 요양서비스	산업범위	- 고령자를 위한 요양, 기기용품, 정보 등 8대 산업과 대통령이 지정한 산업
	- 기기산업	- 이동기기 등 10대 용품		
	- 정보산업	- 홈케어, 노인용 디지털콘텐츠 등	기반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연구개발 장려 - 용품 및 산업의 표준화 지원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 여가산업	- 스포츠, 문화, 관광레저 등		
	- 금융산업	- 역모기지, 퇴직연금 등		
	- 주택산업	- 고령자용 임대주택, 주택개조 등		
	- 한방산업	- 노인용 한방화장품 등		
- 농업	- 친환경 농산물 등			
2차 주요 산업	- 교통산업	- 저상버스 등	품질향상	- 우수제품 등의 지정 및 표시 - 우수제품 등의 지정 취소 - 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 우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환수
	- 식품산업	- 건강기능식품 등		
	- 의약품산업	- 노화방지제 등		
	- 장묘산업	- 웰에딩 프로그램 등		
	- 의류산업	- 건강섬유 등	벌칙	- 과태료 조항 등
	- 교육산업	- 평생학습 등		

자료: 지경부,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2005.

자료: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007.

□ 시장규모 추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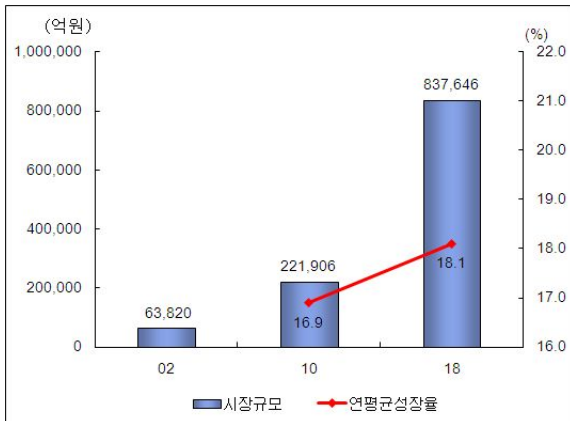
- 2010년 시장규모 추정에서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05)가 사용한 2002년 시장규모 추정방법을 중심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변수나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함

- (2002년) 2005년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추정한 금액을 이용
- (2010년) 주택, 한방, 정보산업은 2002년 추정방법에 사용된 변수를 사용했고, 요양, 금융, 기기용품은 신제도 및 조사 도입으로 새로운 현황변수를, 여가, 농업은 시장규모에 대한 관점 변화로 소비액 중심의 새로운 방법으로 추정함
- (2018년)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시장성장률과 2010년의 고령화비율을 기준으로 2018년까지 각 년도에 대한 고령화 증가율을 지수화해 추정함
⇒ 2018년 추정에서는 동일기간 가구들의 가처분 소득증가율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인한 신산업 등장 등 성장요인이 고려되어야 하나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 본 추정과정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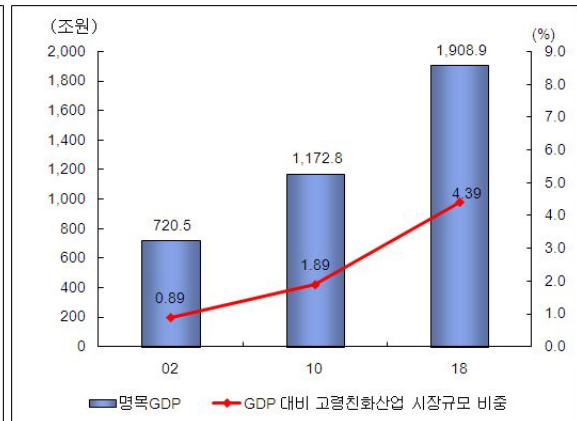
□ 전체산업 추정결과

- (전체추이) 2002년 6조 3,820억 원에서 2010년 22조 1,906억 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에는 83조 7,646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기기용품, 정보, 여가, 주택, 한방, 농업 등 비금융 7개 산업과 금융산업의 규모를 추정해 합산함
 - 2010년과 2018년의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파악을 위한 기준은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10)가 추정한 각 산업별 2002년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삼았음
- (2010년 시장규모) 2002년 대비 3.48배 성장한 22조 1,906억 원으로 명목 GDP('10) 대비 1.89%에 달함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6.9%로 동기간 명목 GDP 성장률인 6.3%보다 10.6%p 높았음
- (2018년 시장규모)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시장규모는 83조 7,646억 원으로 명목 GDP('18) 대비 4.39%로 2010년에 비해 2.5%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8년은 한국이 전체 인구 중 65세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으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고령친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8.1%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인 16.9%보다 1.2%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추이 >



< 명목 GDP 대비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자료: '02년 시장규모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10년과 '18년 시장규모는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비금융부문 세부산업 추정결과

- (추이) 2002년 5조 3,412억 원에서 2010년 15조 3,398억 원으로, 2018년에는 56조 6,33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비금융 고령친화산업이란 고령친화산업의 8대 산업 중 고령친화금융산업을 제외한 7대 산업을 범위로 함
 - 전체 시장규모 대비 비금융산업의 시장규모 비중은 2010년 70.2%이며, 2002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은 14.1%, 2010년~2018년은 17.7%로 추정됨
 - 비금융산업 중 2002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여가산업(45.7%(02)→33.9%(10)→25.7%(18))이나 한방산업(19.1%(02)→9.8%(10)→5.2%(18))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 가장 비중이 낮았던 요양산업(0.2%(02)→14.6%(10)→15.0%(18))과 정보산업(4.6%(02)→8.7%(10)→17.0%(18))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비금융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



< 세부산업별 시장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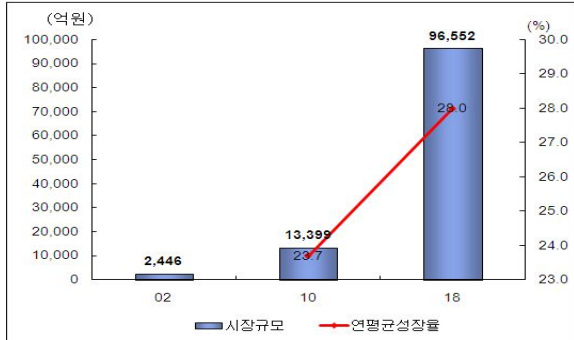
산업	2002		2010		2018	
	액수 (억원)	비중 (%)	액수 (억원)	비중 (%)	2018 (억원)	비중 (%)
소계	53,412	100.0	153,398	100.0	566,332	100.0
기기	7,008	13.1	18,602	12.1	64,953	11.5
정보	2,446	4.6	13,399	8.7	96,552	17.0
여가	24,387	45.7	51,962	33.9	145,641	25.7
주택	5,871	11.0	20,281	13.2	92,159	16.3
한방	10,188	19.1	15,036	9.8	29,191	5.2
농업	3,383	6.3	11,684	7.6	53,083	9.4
요양	129	0.2	22,434	14.6	84,754	15.0

- (정보산업) 2002년 2,446억 원에서 2010년 1조 3,399억 원, 2018년에는 9조 6,552억 원으로 성장하고, 2010년~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8.0%로 전망
 - 고령친화정보산업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로 구성된 모태산업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정보통신기기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임
 - OECD 자료를 이용해 2010년 전체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에서 65세 인구 비중과 고령자 인터넷 이용률을 이용해 고령친화정보산업의 시장규모를 추정함

< '10년 고령친화정보산업 시장규모 >

① 전체 정보산업 시장규모 (억 원)	② 65세 이상 인구 비중 (%)	③ 6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	고령친화 정보산업 시장규모 (억원)=① ×②×③
563,863	10.9	21.8	13,399

< 고령친화정보산업 시장규모 추이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통계청,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2010., OECD,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주: 65세 이상 인터넷 이용률 자료 부재로 60대 이상 인터넷 이용률 자료를 사용

- (여가산업) 2002년 2조 4,387억 원에서 2010년 5조 1,962억 원으로, 2018년에는 14조 5,641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고령친화여가산업이란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의 여가활동을 산업화한 것으로 문화산업, 여행·레저산업, 스포츠산업으로 분류됨
- 본고에서는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시장규모를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여가활동에 지출한 소비액으로 가정하고 연평균 여가비용에 모집단 수를 곱해 추정함
- 2010년 고령친화여가산업의 시장규모는 5조 1,962억 원, 연평균 성장률은 9.9%였으며, 2018년에는 시장규모가 14조 5,641억 원, 연평균 성장률은 13.7%였음

< '10년 고령친화여가산업 시장규모 >

연령	① *월평균 여가비 (천원)	연평균 여가비 (천원)	② **모집단 수(명)	①×12×② 매출액(억원)
65~69	131	1,572	1,182,168	18,583
70세 이상	77	924	3,612,449	33,379
합계				51,962

< 고령친화여가산업 시장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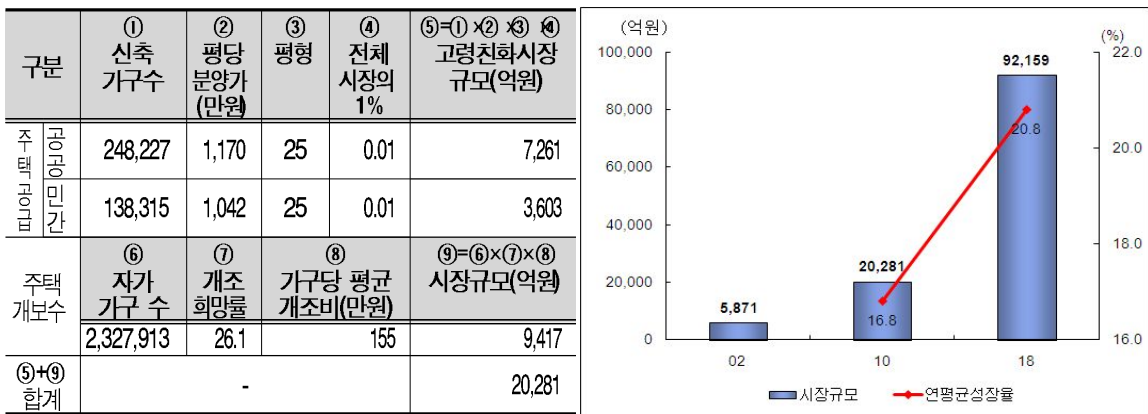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통계청, 총인구조사 2010.

자료: 문화관광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

- (주택산업) 2002년 5,871억 원에서 2010년 2조 281억 원으로, 2018년은 9조 2,159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20.8%에 달함
- 고령친화주택산업이란 고령자가 독립적으로 거주 할 수 있도록 전용주거를 공급하는 산업과 고령자만 거주해도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에 문턱을 없애는 등 개조하는 산업을 의미함
- 공급측면의 경우, 시장규모는 월세 등 이용료가 아닌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주택 중 고령자가 구매하는 주택들의 가격으로 시장규모를 추정함
- 개조측면의 경우, 65세 이상 자가가구 수에 고령자들의 개조 희망율과 고령친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개조비용을 적용해 추정함

< '10년 고령친화주택산업 시장규모 > < 고령친화주택산업 시장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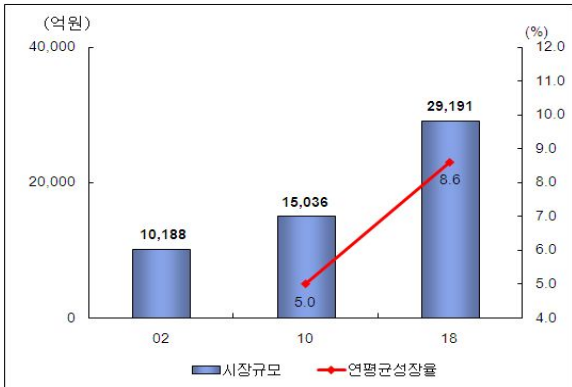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부동산 114, 자료: LH주택공사, 2010.
주택도시연구원, 고령자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2006.

주: 주택 공급 전체 시장규모는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가정을 적용, 신축 가구 주택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구입율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구매율 1%를 적용함

- (한방산업) 2002년 1조 188억 원에서 2010년 1조 5,036억 원으로, 2018년에는 2조 9,19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한방산업이란 한의학의 원리와 소재, 방법론을 활용하여 개발된 고령자용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함
- 우선 2010년 전체 한방시장규모를 보건복지부의 2009년 7개 세부산업의 시장 규모에 2005년부터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각각 적용한 후 합산하여 추정함
- 2010년 고령친화한방산업 시장규모는 각각 세부 산업별로 65세 이상 한의원 진료비율, 전체여성 대비 65세 여성비율, 65세 인구비율을 적용해 추정함

< '10년 고령친화한방산업 시장규모 > < 고령친화한방산업 시장규모 추이 >

구분	① 전체한방 시장규모 (억 원)	② 65세 이상 비중 (%)	③=①×② 고령친화 시장규모 (억 원)
전체	88,303	-	15,036
한약의료서비스	31,895	26.7	8,516
한방화장품	14,869	13.4	1,992
인삼홍삼	21,253	10.9	2,317
한약제제	2,809	10.9	306
한약유통	7,182	10.9	783
한약재배	9,956	10.9	1,085
한약의료기기	340	10.9	37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2011

주: 65세 이상 비중에서 한약의료서비스는 65세 이상 한의원진료비율을, 한방화장품은 전체여성 대비 65세 이상 여성비율을, 기타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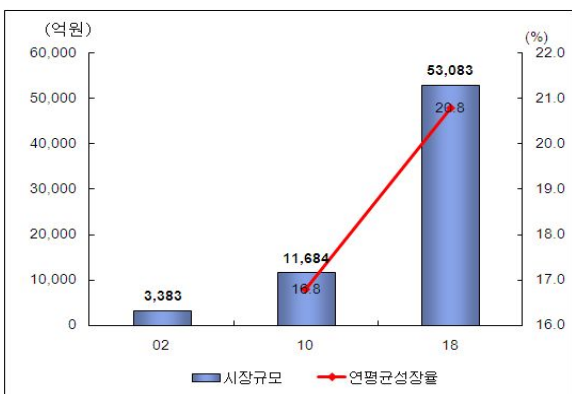
- (농업) 2002년 3,383억 원에서 2010년 1조 1,684억 원으로, 2018년에는 2조 9,1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농업이란 농업부문에서 민간이 주체가 되어 현재 및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신생산업을 의미함
- 본고에서는 우선 2009년 산업연관표의 국내 농산물 민간소비액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 2010년 전체 농업시장 규모를 추정함
- 2010년 고령친화농업 시장규모를 전체 농업시장규모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적용해 추정함

< '10년 고령친화농업 시장규모 추정 >

① 전체 농업시장 규모 (억 원)	② 65세 이상 인구 비중 (%)	③=①×② 고령친화농업 시장규모 (억 원)
107,197	10.9	11,684

< 고령친화농업 시장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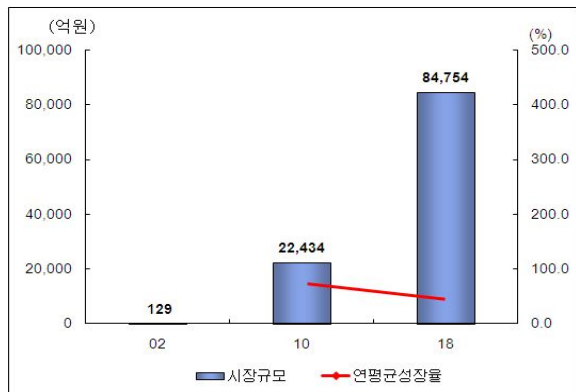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009, 2005.

- (요양산업)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2002년 129억 원에서 2010년 2조 2,434억 원, 2018년에는 8조 4,754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 고령친화요양산업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민간이 주체가 되어 요양서비스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산업으로 재가요양과 시설요양 2부분으로 분류됨
 - 본고에서는 요양산업의 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의 시장규모를 2008년에 도입된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65세 이상자 급여액을 대체변수로 이용함1)
 - ⇒ 민간기관들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
 - 장기요양보험의 단기간 도입으로 인해 성장률이 90.6%에 달해 2018년 시장규모는 2002년~2010년까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해 산정함

< '10년 고령친화요양산업 시장규모 >

구 분	2010
합계(억 원)	22,434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65세 이상 급여액	12,615
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65세 이상 급여액	9,809

< 고령친화요양산업 시장규모 추이 >



자료: 건강보험공단, 2010 장기요양보험 통계.

- (기기용품산업) 2002년 7,008억 원에서 2010년 1조 8,602억 원으로, 2018년에는 6조 4,9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이란 고령자 대상 건강관리, 수발, 일상생활, 여가·문화 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고령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제품인 고령친화기기용품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함
 - 2010년 시장규모는 법령으로 정해진 고령친화기기용품에 초점을 맞추어 2006년 도입된 고령친화용품실태조사의 결과치들을 이용해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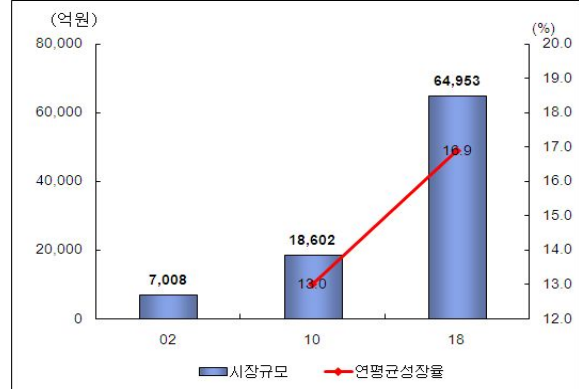
1) 2002년 민간의 시설요양서비스 시장규모는 공적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서비스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

- 특히, 9개 세부용품 시장규모는 3년간 수입·생산액 변동이 심해 기타용품으로 분류 후, 보수적 관점에서 개인건강·의료용품의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함

< '10년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 시장규모 >

구분	시장규모 (억 원)	비중 (%)
전 체	18,602	100.0
개인건강 의료용품	9,815	52.8
기타용품	8,784	47.2

< 고령친화기기산업 시장규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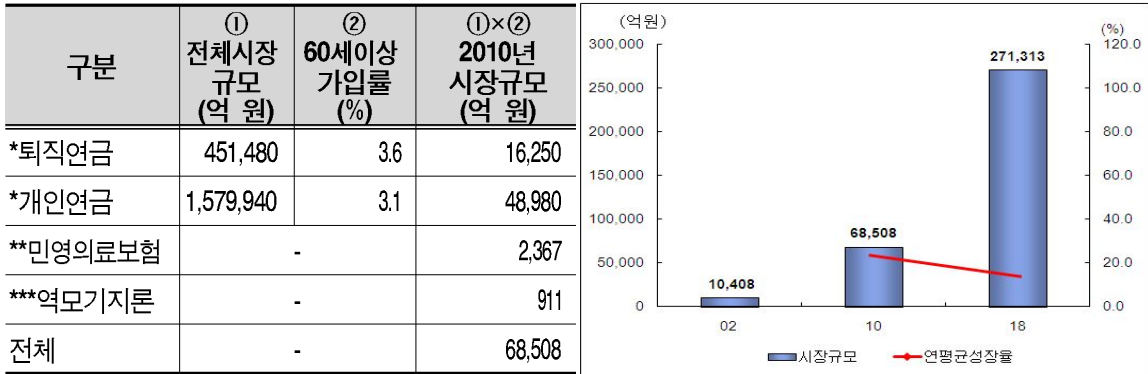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령사회용품산업협회, 고령친화용품 실태조사 2009.

주: 2010년 기타용품 시장규모는 3개년('06~'08)년도의 평균 시장규모를 2008년 규모로 가정하여 추정하였고, 전체 시장규모 대비 기타 용품시장 비중은 2008년의 47.8%와 비슷한 47.2%였음

□ 금융부문 산업 추정결과

- (금융산업) 2007년 역모기지론의 도입 등으로 인해 2002년 1조 408억 원에서 2010년 6조 8,508억 원으로, 2018년에는 27조 1,31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친화금융산업이란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개인자산의 축적과 관리를 통해 노후소득의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는 금융서비스 전반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민영의료보험, 역모기지론 등으로 구성됨
- 2010년 시장규모 추정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총 규모에 60대 이상 가입율을 곱해 산출하고, 민영의료보험은 2009년 보험개발원의 실손의료보험료 현황치에 65세 인구 비중을 적용한 후, 현황치 연평균 성장률('02~'09)을 적용함
⇒ 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의 지급액 현황치를 인용함
- 2018년 시장규모 추정에서 개인연금은 금융감독원의 2007년~2010년까지 개인연금 적립금 현황치의 연평균 성장률 13.5%를 적용함
- 퇴직연금과 민영건강보험은 2002년~2010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했지만 역모기지론은 짧은 도입기간으로 인한 높은 연평균 성장률 대신 보수적 관점에서 2002년~2010년까지의 금융산업 전체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추정함

< '10년 고령친화금융산업 시장규모> < 고령친화금융산업 시장규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고령사회 진전으로 인한 사학연금시장의 급성장, 2011. 조용운 외1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 추이, 2011.,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 2011.

주: 민간건강보험 시장규모는 조용운 외1인의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률' 추이에서 보험개발원 자료인 2009년 65세 이상 실손의료보험료 현황치에 연평균 증가율('02~'09)을 적용해 산출함,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65세 이상 가입률 자료가 부재해 60세 이상 가입률을 사용

3.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문제점 파악 및 발전 방안

-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서 규모 확장중심의 성장기로 진입한 고령친화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세부산업별 문제점 파악 및 발전방안이 필요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고령친화산업이 신제도 도입 등 정부주도의 시장형성 단계였다면, 2018년까지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성장기에 해당함
 -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성장방안과 향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방안이 필요함
- (전 체) 공공 부문은 산업간 연계를, 민간 부문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유인책 개발을 통해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내수중심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정부주도의 각개격파 전략으로 시너지 창출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부문은 요양산업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품목에 기기용품산업의 고령친화 용품을 포함한 것처럼 다양한 산업들의 연계 육성전략을 추진해야함
 - 민간부분의 경우, 산업 내 R&D 지원 및 법적 문제 해결 등 민간기업의 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 개발이 필요함

① 정보산업

- (문제점) u-Health 산업은 대면중심의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 국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음

- 2005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고령친화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품목으로 e-Health 산업과 세대간 정보격차해소 위한 산업을 선정함
- 이 중 e-Health산업은 u-Health산업으로 진보했지만 원격의료행위로 인해 현재 대면의료 중심의 의료법 및 약사법에 접촉되어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임
- u-Health 기술개발을 완료한 일부 국내기업들은 제품판매 제한으로 출시를 지연하거나 국내 시장보다 해외시장으로의 직접 진출을 모색 중임

< u-Health 산업관련 법제도 문제 >

구 분	추진내용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ealth 허용범위 확대 · 의사환자(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간 서비스 허용 - u-Health 영역 서비스 책임소재 명확화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ealth 영역 서비스 환자의 의약품 대리수령 허용 - u-Health 영역 서비스 행위 온라인 처방전 발행 허용

자료: u-Health 신산업 창출, 2010 지식경제부.

< 국내 u-Health 관련 기업의 현황 >

구 분	추진내용
LG전자	- '04년 세계 최초로 당뇨폰을 개발, 국내 의료법 위반으로 판매 지연
삼성전자	- '09년 미국 Kaiser 보험과 만성질환 관리 임상시험 시행
인성정보	- '08년 리투아니아 방문의료시스템 시장 진출
비트컴퓨터	- '08년 우즈베크에 원격진료시스템 시장 진출

자료: 지식경제부, 2010.

- (발전방안) u-Health 서비스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품목에 u-Health 서비스를 포함하여 시장성장을 유도

- u-Health 산업 중 u-Silver 서비스는 65세 이상이며, 원격 재가요양 서비스품목임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재가급여 대상이 가능함
- 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장기요양보험 품목에 u-Health 산업에 대한 보험급여를 포함시켜 기기용품 산업과 같이 성장을 유도해야함

② 여가산업

- (문제점) 노인복지회관, 문화센터 등 공공 중심으로 여가산업이 형성된 반면 관광, 영화 등 고령자에 맞춤형된 민간 여가산업은 미흡
 - 여가활동 중 고령자들은 여행·관광·낚시(2.0%)보다는 운동·건강관리(61.6%), 지식교육 및 교양 프로그램 참여(45.9%)를 선호해 여가시설도 노인복지회관(86.5%), 지자체 문화센터(9.1%) 등 공공여가시설의 참여율이 높음³⁾
 - 그러나 60대 이상자의 해외여행 규모는 9%로 국외여행 횟수, 경비 등에서 전체 국민들에 비해 아주 낮지 않지만, 고령자에 맞춤형된 여행사는 2011년 현재 실버투어여행사와 실버아시아나 등 2개 사 뿐임
 - 또한 고령자 영화관인 실버영화관의 총관객수가 15만 명을 넘었고('10), 실버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관객 수 1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요가 존재

< 전체 대비 60대의 여행행태 비교 >

구분	해외여행('08)		국내여행('09)	
	전체	60대	전체	60대
연간평균여행횟수	3.6회	2.9회	7.0회	5.4회
평단경비	개별여행	205만원	186만원	21만원
	패키지여행	179만원	175만원	

< 고령친화영화산업 현황 요약 >

구분	내용
영화관	- 서울시 실버영화관(허리우드): · 2010년 총 관객 수 15만 명 · 서울시 재원 지원 없음 - 서울시 청춘극장 · 일평균 관객 수 350명 · 서울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 - 부산시 시민회관 등 · 매월 3번째 월요일 상영
영화	- 실버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개봉 8주 만에 관객 수 150만명 - 부산 2011년 10월 실버영화제 개최

자료: *문화관광부, 한국관광통계, 국민여행실태조사 2009.,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2008.

주: 65세 이상 고령자의 국내외 여행행태 자료가 부재해 60세 이상 자료를 사용

- (발전방안) 여행산업은 고령자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여 민간 기업을 지원하고, 영화산업은 기업의 재정후원을 유도해 산업을 육성
 - 여행업은 고령자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체가 고령자 중심 의료 및 한방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민간 여행사들을 지원해야함
 - 민간 노인전용 영화관의 경우, 사회적 책임 또는 고령친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재정 후원을 유도해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문화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 2010, 문화관광부, 노인여가실태조사, 2008.

③ 주택산업

- (문제점) 민간 신규주택 공급은 고령자의 현 주택 거주희망률이 높아 부정적인 반면, 주택개수에 대한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 중심임

- 고령자들이 현재 집에서 거주하겠다는 의향이 평상시나 건강악화 시, 그리고 혼자 살 경우 등 매우 높아 단기적으로 신규 공급시장의 성장은 부정적임
- 공공 고령자용 임대주택이 '05년 이후 2,543가구가 공급되었으나, 민간 실버타운은 '08년 이후 비싼 가격과 세제적용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임⁴⁾
- 한편, 문턱 등 고령자의 현 주택 개조희망률은 26.1%로 수요가 존재하나, 정부의 주택개수 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⁵⁾

< 65세이상 상황별 노후 희망거주 형태 >
(단위 %)

희망거주 형태	평상시	건강악화 시	혼자 살게 될 경우
현재 집	94.1	71.8	69.3
무료양로시설	0.5	8.8	6.2
고령자 전용임대주택	0.6	1.7	1.7
실버타운	0.3	3.8	4.6
노인공동생활주택	0.4	1.8	2.0
다른 주택으로 이사	3.3	3.8	4.8
자녀/친지집	0.3	7.0	9.6
기타/모름	0.5	1.2	1.8

< 주택개조 희망여부와 희망사항 >
(단위 %)

구 분	전국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개조희망율	26.1	19.5	21.7	33.9
문턱 등 단차제거	23.4	24.0	17.6	24.7
화장실욕실손잡이	20.3	20.7	26.9	18.4
양변기	14.6	3.8	13.5	20.5
비탁재	11.4	17.8	10.9	8.1
복도계단손잡이	9.9	12.4	13.2	7.8
화장실문	6.4	5.8	7.2	6.5
응급비상벨	3.1	2.7	2.5	3.5
부엌 작업대 높이	1.7	1.9	0.7	1.8
복도출입문넓히기	1.0	1.5	0.0	1.0
기타	8.2	9.5	7.5	7.7

자료: 국토연구원, 2007년 주거실태조사, 2007.

자료: 국토연구원, 2007년 주거실태조사, 2007.

- (발전방안) 민간은 신규주택 공급보다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통해 주택개수시장을 육성하고, 공공은 취약계층을 위한 고령자 주택 공급량을 확보

- 국회 계류 중인 고령자 주거안정법에는 일반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수 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법제정 시, 민간 고령친화주택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 고령자 주거안정법에는 지방자치체가 고령자용 임대 주택건설을 위한 노력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취약노인층을 위한 주택공급량 확보가 가능할 것임

4) 공공부문은 LH주택공사 자료, 2011., 민간부분은 보건복지부 민간노인복지주택 현황, 2010.

5) 보건복지부는 '집수리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노인주거개선' 사업을 2002년 이후 추진해 왔으나 일반 고령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노인단독가구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④ 한방산업

- (문제점) 고령화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가격부담과 한약재의 안정성 문제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한의원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2010년에 들어 급감함
 - 향노화 제품인 한방화장품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9년 1조 513억 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함
 - 그러나 한국의 고령화 수준과 비교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한의원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8년 6.5%까지 성장하다가 2010년 5.1%로 1.4%p 급감함
 - 급감 이유는 가격부담으로 인한 의료보험화 요구,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 및 한약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의 개선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

< 한의원 의료서비스 이용률 추이 >
(단위 %)

구분	2003	2006	2008	2010	
고령화 수준	8.1	9.3	10.2	10.9	
한의원 의료 서비스 이용률	전체	5.6	5.6	5.4	4.5
	65세 이상	5.0	5.6	6.5	5.1

< 65세 이상의 한방의료 개선점 >
(단위 %)

개선점	응답율
의료보험화	36.4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한약재 유통	28.4
한약에 대한 안정성 확보	16.7
치료효과 과학화	8.9
한약복용방법 간편화	5.2
기타	4.4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0.

자료: 한국한의학연구원, 2008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2010.

- (발전방안) 한약보약재의 의료보험 적용 확대,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제 등 표준화 작업 및 노인전문 한방의원 도입을 통해 시장 성장을 유도
 - 침, 뜸 외에 한약보약재 등 탕 항목에 대한 보험확대를 추진하고,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격공시제 등으로 고령자의 가격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임
 - 한약재의 투명한 유통을 위한 수입 및 국내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제와 한약재 품질기준 마련 등 표준화 작업 추진으로 한약재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함
 - 중풍 등 고령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인성 질환 전문한방의원 도입 및 육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⑤ 농업

- (문제점) 기존 고령농가와 고령 귀농인들의 소득증진을 위한 신농업 교육 등 지원정책이 부족함

- 농촌의 기존 농가 중 60대(3,151만원)와 70대 이상(1,995만 원)의 고령농가의 연 농가소득은 30대(3,371만원), 40대(4,475만원), 50대(4,394만원)가구보다 낮음
- 또한 귀농·귀촌가구들의 실패요인 중 자금부족과 소득원 확보가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됨
- 교육의 경우, 귀농인들을 포함한 농촌의 고령자 대상의 신농업 등 전문 영농교육이 부족하고, 창업지원의 경우 기존 고령농가는 부재한 상황임

< 귀농 귀촌의 실패 요인 >

실패 요인	1순위	2순위
사전준비 부족	47.5	8.0
자금부족	13.0	16.7
소득원 확보 문제	11.4	23.2
마을 주민과의 불화	9.1	7.1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의존	6.0	10.3
기타	13.0	34.7

< 농촌의 교육 및 지원금 정책 >

구분	사업 내용	대상
교육	기존 농가 - 농고현장 체험지원, 대학 생창업연수제, 농과대 영농정착과정 등	만45세 미만
	귀농 농가 - 귀농 교육프로그램, 농업 인턴제 등	만55세 미만 우선
지원금	기존 농가 -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만45세 미만
	귀농 농가 -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귀농교육 3주 이상 이수자

자료: 농림식품수산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안착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뉴타운 공동체 농촌사회발전방안 연구, 2011
조성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등

- (발전방안) 고령자에 맞춤형된 전문 영농교육 개발과 창업지원금 제도마련을 통해 고령농가들의 소득증진을 추진

- 고령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교육의 경우 신영농사업에 대한 고령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사업이 시급함
- 귀농인 대상교육의 경우 만 55세 미만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상대적 기회박탈이 우려됨으로 고령 귀농인 전문교육이 필요
- 2010년까지 만 55세 미만에게 주어졌던 귀농인 농업창업지원금의 연령제한폐지 사항을 홍보하고 기존 고령 농촌가구의 창업지원 제도도 마련

⑥ 요양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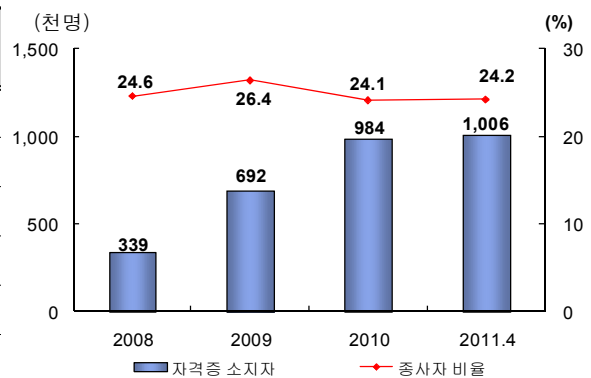
- (문제점) 양적 측면에서는 적은 재정규모로 수혜자가 적고, 질적 측면에서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과대하며 처우가 열악

- 장기요양보험 개선점 중 인정등급 확대와 치매노인 등급 판정기준 완화, 방문재활서비스 추가 및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는 낮은 수혜율(49.8%(10))을 의미
- 현 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가 OECD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비중인 1.25%(00)보다 매우 낮은 0.2%수준이기 때문임
-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1년 들어 100만명에 달했지만 산업 종사자 비율은 2008년 이후 24~26%대이며,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574,335원임
- 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은 일정교육이수 시, 자격증이 발급되는 제도 때문이며,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는 요양보험기관들의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때문임

<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개선점 >

개선점	응답율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	46.7
치매노인 등급 판정기준 완화	13.8
방문재활 서비스추가	8.9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및 처우개선	7.7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확대	6.0
기타	17.9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종사자 >



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대국민 의견수렴 및 국민만족도 조사, 2011.

자료: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2010

- (발전방안)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비율확대로 수혜자 확대를 추진하고, 제도수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질적 향상을 추진

- 일본 개호보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22.5%의 재원을 조달하나, 한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같이 20.5%를 조달해 재원조달 비중 확대가 필요
-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일반인에서 간호사 등 전문요건을 갖춘 자로 요건을 강화하고, 요양보험기관들의 과당경쟁방지를 위해서는 기관인증 관리를 강화

⑦ 기기용품산업

- (문제점) 참여기업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신제품 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 등 R&D 투자 능력이 부족함

- 고령친화기기용품은 대부분 행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요양관련 제품들로서 2008년 기준 국내 생산비중이 61.0%로 수입비중보다 높음
- 그러나 참여기업들은 국내 전체 중소기업들에 비해 평균 자본금, 평균 매출액, 평균 종업원 수에서 매우 영세한 수준임
- 한편, 정부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홍보 등 상용화 지원과 인증 등 표준화 작업, 현장전문 인력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R&D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 중소기업 및 용품산업 참여기업 비교>

구 분	전체 중소 제조 기업 (’09)	기기용품산업 참여기업 (’08)
기업 수(개)	111,236	866
평균 종업원수(명)	19.4	11.7
평균 매출액(억 원)	50	15.4
평균 자본금(억 원)	5.2	1.0

자료: 중소기업청 주요통계 2009., 한국고령사회
용품산업협회, 고령친화용품 실태조사 2009.

< 고령친화산업 지원센터 주요사업>

사 업	내 용
상용화 기반 구축	- 박람회 참가 등 기업지원 -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구축 - 고령친화용품 우수제품·우수사업 자 지정 등
시험인증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시험인증실 및 테스트베드 운영 - 고령친화용품 제조 및 시험평가 기술 표준화 지원 등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교보재 개발, 창업 교육 등
표준화기반 구축	- KS규격 및 단체표준 규격 개발 -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규제완화 추진

자료: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2011.

- (발전방안) 제품 R&D를 정부가 주도하고 전파함으로써 참여기업들의 경쟁력
을 강화시켜야 함

- 고령친화기기용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R&D시설 및 전문 인력 등에서 현 참
여기업들은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고령친화기기용품에 대
한 R&D를 주도해야할 필요가 있음
- 기기용품의 표준화, 인증, 홍보를 담당하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R&D 중
심지로 발전시킨다면,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음

⑧ 금융산업

- (문제점)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이 낮으며, 부동산 담보를 통한 연금 상품인 역모기지론의 지방가입률이 낮음

- 65세 이상 가구의 총자산은 2억 4,694만원으로 이중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융 자산 비중은 12.6%로 전체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보다 8.8%p적음
- 반면에 부동산 비중은 86.2%로 매우 높아 2007년 이후 도입된 역모기지론을 노후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역모기지론에서도 수도권 대비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의 가입비중이 낮음

< 국내 가계 총자산 구성 >
(단위: %)

구분	전체		65세 이상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총자산	27,268	100.0	24,694	100.0
금융자산	5,828	21.4	3,122	12.6
부동산	20,661	75.8	21,275	86.2
기타실물자산	779	2.9	297	1.2
부채	4,264	15.6	2,371	9.6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조사, 2010

< 역모기지론 지역별 가입 현황 >
(단위: 건 %)

구분	2009		2010		2011.7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수도권	884	78.6	1,547	76.7	1,037	75.1
지방	240	21.4	469	23.3	343	24.9
합계	1,124	100.0	2,016	100.0	1,380	100.0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및 보증공급, 2011.

- (발전방안) 역모기지론의 지방 확산 및 민간금융기업의 고령자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도입을 유도

- 지방거주 고령자의 낮은 역모기지론 가입비중은 향후 지역별 노후생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어 지방 자치체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 사업이 필요함
- 적은 금융자산으로 노후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민간 금융기업의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및 도입도 필요 **HRI**

이철선 연구위원 (02-2072-6242, cslee@hri.co.kr)

< 별첨 >

< 2002년, 2010년, 2018년 시장규모 추정방법 비교 >

구 분	2002년	2010년	2018년
주 체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전 체	- 각 산업 규모 추정 후 합산	- 각 산업 규모 추정 후 합산	- 각 산업규모추정 후 합산
용 품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 현황치 적용	- 산업보건진흥원의 실태조사 결과('06~'08) 이용 - ('06~'08) 연평균 성장률 적용	- ('02~'10) 각 산업 연평균 성장률 적용 - 전 산업 2010년 기준 각 년도 고령화 증가율 적용
정 보	- 정보통신 전체산업규모에서 인터넷 이용률을 이용, 정보산업 전체 시장규모 산정 후 고령친화정보산업 비중 0.1%로 산정	- 정보통신 전체 산업규모(OECD)에 65세 인구비중과 60대 인터넷 이용률을 적용해 산출	
여 가	- 문화산업 각 시장규모에 노인인구비중과 노인사용시간 비중을 곱해 산정	- 65세 이상 모집단 × 연평균 여가비 - 연평균 여가비는 노인여가실태 조사결과 반영	
주 택	- 주택공급 = 신규 주택수('02) × 25평 × 국민임대주택 평당 건설비 × 고령자 구매율(1%) 적용 - 주택개조 = 재고 주택호수 × 개보수 실시율(0.08%) × 가구당 개조비용	- 주택공급 = 신규 주택수('02) × 25평 × 국민임대주택 평당 건설비 × 고령자 구매율(1%) 적용 - 주택개조 = 65세 이상 자가가구 수 × 개조희망율 × 가구당 개조비용	
한 방	- 보복부 현황자료 ×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또는 노인진료건수 비율 적용	- 보복부 자료('09)에서 7개 세부 관련산업의 2010년 규모추정 - 각 세부산업별로 65세 비중 등을 적용해 합산	
농 업	- 전체 농업시장규모 추정 (농촌경제연구원) 후, 매출액 비중 1% 적용	- 산업연관표의 국내 농산물 민간 소비액에 연평균성장률('05~'09) 적용, 2010년 전체시장규모추정 - 고령친화농업규모는 전체시장 규모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적용	
요 양	- 65세 이상 민간 시설요양 서비스 현황치만 적용	- 민간시설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보험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및 재가 서비스 급여액('10) 적용	- 전체 비금융부문 연평균 성장률('02~'10) 적용
금 용	-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통계치	- 퇴직 및 개인연금 = 금감원 자료 × 60대 가입률	- 퇴직연금은 ('02~'10) 연평균 증가율 적용 - 개인연금은 ('07~'10) 현황치 연평균 증가율 13.5% 적용
	- 개인의료보험은 보험개발원 통계치에 65세 비중 적용	- 2009년 통계치에 2002년 방법으로 산정 후 2010년 추정	- ('02~'10)년 연평균 성장률 적용
	- 역모기지론 미도입	- 역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 지급액 현황치 사용	- 전체 금융 산업('02~'10) 연평균 증가율 적용

자료: 2002년 방법은 대통령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2005.

2008년, 2010년 방법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2.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2.0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7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6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3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1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2일	9월8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1.99	1.98	-0.01%p
	엔/달러	92.93	88.43	81.19	76.85	77.34	0.49¥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4266	1.4083	-0.0183\$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240	11,296	56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951	8,793	-15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4	3.40	-0.04%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063.0	1,075.1	12.1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67.8	1,846.6	-21.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2일	9월8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6.53	88.86	2.33\$
	Dubai	78.06	73.14	88.80	108.93	110.08	1.15\$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38.06	339.90	1.84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